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

*Together with the Region,
A Major Shift Toward the Global Stage*

기독교 명문대학인 한남대학교는
지역을 이끌고 세계로 뻗어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배출합니다.

한남대학교 학생들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할것입니다.

HANNAM DREAM



한남대학교 소식지
2026 Summer Vol. 43



대학설립부지 답사(1954)



대전대학 당시 이동우체국(1969)



대학 첫 캠퍼스 건립(1957)



인도기념관(Dr.Prince부부)
(1960)



선교사촌(1950-2026현재)



국내 최초 캠퍼스혁신파크(2024)



한남메이커스페이스(2020)



한남대학교 대덕밸리캠퍼스(2007)



한남대학교(1985 - 2026현재)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

Together with the Region,
A Major Shift Toward
the Global Stage

한남대학교 소식지
2026 Summer ● Vol. 43



발행일 2026년 07월
발행처 한남대학교
발행인 이승철
편집인 이동철
글·사진 고상범, 김민영, 차수민
제작처 한남대학교 입학홍보처 홍보팀
www.hannam.ac.kr

이 책의 저작권은 한남대학교에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저작권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전재될 수 없습니다.

STORY 1
Achievement Hannam

- 04 미래100년 새로운 도약 출발점에 서다.
 - ① 엠블럼 공표, 진리의 상아탑
 - ② 개교70주년 기념식(해외자매대학 축하 등)
 - ③ 한남대 HNU BEYOND 2030 중장기발전계획 비전 선포식
 - ④ 개교70주년 기념 굿즈 ‘인기’
- 10 한남대, 268억 규모 ‘국방AX거점’
건축 사업 주관기관 선정
- 12 한남대학교 국방AX융합연구소,
ADD 함정 무인기 효과도 분석 사업 수주
- 13 한남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대전지역 대학 유일 ‘S등급’
- 14 창업중심대학 성과 최우수 등급(S) 획득
- 15 대전청년센터 맞손,
청년창업환경 확산 나서
- 16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전국대학 지원률 1위



STORY 2
People Hannam

- 18 代를 이은 ‘한국 사랑’
한남대 설립 초기 선교사 자녀 릴리안 프린스
- 20 한남대 호텔항공경영학과 학생들,
SNS 글로벌 여행 공유 누적 조회수 500만회 달성
- 22 영어영문학과,
동문 선배들의 특별한 강의
- 24 실험실 창업의 모범,
메타뱅크 소요환 교수
- 26 한남대 디자인팩토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FC’
글로벌 챌린지‘우승’
- 27 김상식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
한남대 베트남 유학생들과 특별한 만남



STORY 3
Donation Hannam

- 28 개교 70주년 ‘축하’ 고액 기부,
서초순 명예교수
- 29 개교 70주년 ‘축하’ 고액 기부,
김병순 (주)나노하이테크 대표
- 30 교수님들의 ‘훈훈한’ 제자사랑
한남대여교수회,
은퇴교수회 발전기금 기탁
- 31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70주년 생일 맞은 한남대에
발전기금 쾌척
- 32 식품영양학과 교수님들의
‘학과 사랑’
- 33 한남대 재경동문회
모교70주년 기념 발전기금 기탁



70th ANNIVERSARY

개교70주년 맞은 한남대학교, 미래 100년 새로운 도약 출발점에 서다.

대전 · 충청 1등 사립대학 한남대학교가 개교70주년을 맞았다. 1956년 재단법인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이사장 인돈, William A. Linton)에 의해 4년제 대전기독교관으로 설립된 한남대는 개교일(4월 15일)을 맞아 70여 년간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미래 100년 도약에 나섰다.

한남대는 개교70주년을 기념해 개교70주년 엠블럼을 공표하는 한편, 개교70주년 기념굿즈(기념우표, 기념엽서, 한남대×성심당 기념빵, 기념인형, 기념 넥타이)를 선보였다. 한남대의 70년 역사를 사진과 글로 담아낸 '한남대학교70년사'를 출간했으며, 지나온 시간에 대한 회고적 기록을 넘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밝히는 이정표가 될 소중한 기록을 남겼다.

한남대는 70주년을 맞이하며 '진리, 자유, 봉사'의 기독교적 이념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2월 한남기독교 전시관도 개관했다. 설립위원 7인을 비롯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선교역사와 당시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44점의 기독교 역사 자료와 한남대 설립 역사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30점의 대학역사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자매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지역의 정치계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기념식도 진행했다.

한남대는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속적 학문 혁신과 글로벌 교육 강화, 첨단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할 새로운 패러다임과 미래비전을 세우고 있다.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과 융합 연구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남대 이승철 총장은 “한남대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산학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 교육의 선도 모델을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HANNAM UNIVERSITY

엠블럼 공표, 진리의 상아탑



한남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 사회민 교수가 디자인한 개교70주년 기념 엠블럼을 공식발표했다.

한남대학교가 교표(학교상징 마크)와 십자가를 모티브로 한 개교70주년 기념 엠블럼을 공식발표했다. 한남대 융합디자인학과 사회민 교수가 디자인한 개교70주년 기념 엠블럼은 한남대 교표 '탑' 부분을 모티브로 해 참된 가르침과 배움의 길을 걸어온 '진리의 상아탑'을 형상화했으며 개교 70주년 상징을 담아냈다.

절음과 이상을 상징하는 한남 군청색은 한남대의 신뢰와 진취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한남 자주색은 사랑과 정열, 인간애를 갖춘 인재 양성의 산실을 나타낸다. 숫자 상단의 십자가 형상은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개교70주년 기념 엠블럼은 2026년 한 해 동안 대학의 각종 홍보물과 상징물 등에 다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한남대의 신뢰와 진취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절음과 이상을 상징하는 한남 군청색, 사랑과 정열, 인간애를 갖춘 인재 양성의 산실을 나타내는 한남 자주색, 숫자 상단의 십자가 형상은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사회민 교수(융합디자인학과)는 “7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솟아오르는 ‘진리의 상아탑’을 형상으로 국가와 인류에 봉사하는 우수한 인재 양성의 교육이념을 담고 있다”며 “숫자 ‘70’과 교표의 ‘탑’ 요소를 연계해 간결하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한남대는 지난해부터 기념 엠블럼 제작을 준비해왔으며, 4월 14일 열린 개교70주년 기념식에서 구성원들에게 공식적으로 공표했다. 한남대는 각종 대외 홍보와 온라인 배너, 광고 등에 공식 엠블럼을 사용할 예정이다.



70th ANNIVERSARY

개교70주년 기념식 (해외자매대학 축하 등)

한남대학교 개교7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개교기념일(4월 15일)을 전후해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14일에는 개교70주년 엠블럼 공표 및 기념포상 행사를 개최했다. 한남대는 개교70주년을 맞아 재학생을 비롯한 교수, 직원,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3명의 동문 선배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헤리티지 영상을 제작했으며, 이를 구성원들에게 공개했다.

영상에는 대학 변천사와 함께 성공한 기업인, 창업자, 언론인, 디자이너, 군인, 소방공무원, 유튜버, 스포츠 감독, NGO, 연구원, 유학생 동문까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선배들이 출연해 국내외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모습들을 선보였다.

개교70주년 기념 포상도 진행됐다. 이날 여수 빈 글로벌미디어·컬처전공 교수와 배인성 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연구업적우수 교원 포상을 받았으며 ▲박수미(상담심리학과) ▲이상훈(경제학과) ▲남충희(전기전자공학과) ▲안준현(바이오제약공학과) ▲이혜순(간호학과) ▲곽동철(중국경제통상학과) ▲이제명(RISE사업단) ▲황경찬(융합디자인학과)교수 등이 연구업적우수교원 총장 특별포상을 받았다. 학교재정기여 우수교원 총장특별 포상으로 이준원(자유전공학부)교수가 수상했다.

개교70주년 기념식에 참여한
이승철 한남대 총장(좌)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우)



개교70주년 기념식에
일본 오키나와국제대학 학생들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HANNAM UNIVERSITY



(상) 개교70주년 기념 포상
(하) '한남대학교 70년사' 출판기념행사

16일에는 해외자매대학, 지역 정치권, 동문 등 각계각층이 참석하는 성대한 기념식이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일본 오키나와국제대학 학생들이 축하공연을 했으며, 곽충환 대전기독교학원 이사장과 윤성원 총동문회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의장, 장종태·장철민·황정아 국회의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최충규 대덕구청장, 일본 자매대학인 시코쿠가쿠인대학 하시모토 카즈히토 이사장, 오키나와국제대학 아사토 하지메 총장, 호쿠세이가쿠엔대학 나카무라 카즈히코 총장, 중국안휘과학기술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한남대학교 70년사' 출판기념행사도 진행됐다. 장수의 편찬위원장을 중심으로 김홍진 교수, 김윤희 교수, 황경찬 교수, 김원배 실장, 안기석 실장, 서대원 학에서, 고상범 팀장 등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1년여간의 제작 기간을 거쳤다. 70년사는 사진으로 보는 한남의 어제와 오늘을 비롯해 직제 및 시설분야, 교육분야, 연구분야, 학생분야,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분야 등 분야별로 70여년의 역사를 상세히 기록했다.

한남대-오키나와국제대학
교류 35주년 기념식과 축하공연



이번에 발간한 70년사는 단순히 지나온 시간에 대한 과거 회고적 기록을 넘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밝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0주년 기념식의 일환으로 한남대-오키나와국제대학 35주년 기념식도 열렸다. 기념식에는 축하공연과 교류 35주년 경과보고에 이어 오키나와국제대학, 시코쿠가쿠인대학, 호쿠세이가쿠엔대학 총장 및 이사장이 참석해 축하했다. 오키나와국제대학과 한남대는 지난 1991년 자매대학 결연 협정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35년간 150여명의 학생 교류를 추진해왔으며 80여명의 대학행정 직원 상호 파견, 양교 총장단 및 교직원들의 정기 방문 등을 통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국제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설립된 한남대는 오늘에 이르러 대전충청을 대표하는 명문사립대학으로 성장했으며,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며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왔다"라며 "지난 70년의 전통과 역량 위에 교육혁신의 힘을 더하고 AI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학 모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70th ANNIVERSARY

한남대 HNU BEYOND 2030 중장기 발전계획 비전 선포식

“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은 한남대가 앞으로
100년을 나아가기 위한
도약을 위한 해.
”



한남대학교가 중장기 발전계획 비전 선포식을 갖고 'HNU BEYOND 2030'을 발표했다. 개교 70주년을 맞은 한남대는 지난 2월 중장기발전계획 비전선포식을 갖고 비전체계도 발표와 중장기 발전계획 주요사항 등을 선포하는 등 대학의 미래발전 방향과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중장기발전계획으로 'HNU BEYOND 2030: 창의로 도전하고,

섬김으로 협력하는 글로컬 혁신대학'을 제시했으며, 6개전략분야, 24개 전략과제, 72개 세부시행 과제를 밝혔다. 'BEYOND'는 지산협력(Briding Region), 교육 대전환(Education Innovation), 학생성공(Youth Empowerment), 조직·인프라(Organizational), 국제화&연구(Networked Global), 재정/성과관리(Driving Financial Sustainability)등 6개 전략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지역산업기반의 대학특성화와 지자체·공공기관·지역산업체 협력 강화, 산학연 혁신거점 조성을 비롯해 학생중심의 교육체계 고도화, 학생 진로 설계 및 이행지원, 스마트캠퍼스 구축 및 인프라 확충,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및 정주 기반 고도화, 지속 가능한 재정수익 증대 및 발전기금 유치 전략과제 등을 제시했다. 한남대는 매년 성과 분석을 통한 롤링플랜을 수립하고 신규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지표와 대학 자체평가 지표 연계를 통한 실질적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올해는 개교 70주년으로 한남대가 앞으로 100년을 나아가기 위한 도약을 위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신규 중장기 발전계획 비전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선포함으로써 대학의 미래 발전 방향과 핵심 전략을 공유하고 실행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HANNAM UNIVERSITY

개교70주년 기념 굿즈 '인기'

한남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감각적인
굿즈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한남대는 개교 70주년 기념
엠블럼 공표 및 기념포상식에서
성심당 콜라보 빵을 비롯한 기념우표,
기념인형, 기념엽서 등
다양한 기념 굿즈 컬렉션을 선보였다.

'1956'빵



한국전쟁 직후인 1956년, 창립한 성심당과 한남대학교가 70년의 시간을 함께 기념하며, '오래된 진심'으로 통하는 '1956'빵을 제작했다.

기념빵은 성심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문산 메아리 빵으로 '한남대×성심당'이 함께 70주년을 기념하며 제작했다. 콜라보 빵은 김병순 총장자문위원장(주.나노하이테크 대표이사)이 구성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기념우표와 기념엽서

한남대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대학의 정체성과 캠퍼스의 발전상을 담은 기념우표를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제작했다. 기념우표는 2종류의 수집용 컬렉션으로 제작됐으며, A세트는 한남대를 설립한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소속 7인의 대학설립위원을 비롯해 개교 초창기 초대 선교사를 기념하고자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 수집한 사진을 복원·제작했다. B세트는 한남대의 캠퍼스 변천사를 사진에 담았다. 1950년대 컬러사진이 귀했던 시절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필름을 공수해 대학부지를 선정하는 모습을 컬러사진으로 기록했으며 대학의 소중한 자료로 남겨져 있다.

기념우표와 함께 기념엽서도 제작했다. 엽서의 테마는 '한남의 어제와 오늘'로 한남대의 역사 사진과, 현재 캠퍼스 화보 사진으로 구성됐다. 부지선정 당시 모습을 비롯해 외국인 선교사들의 수업 장면, 초창기 도서관과 건물 부지 모습, 졸업식과 축제 장면 등 70여 년간의 역사적인 모습들이 담겨있다.



한남대는 이 밖에도 개교 70주년 기념 독수리 캐릭터 인형도 제작했으며, 기념 넥타이, 만년필 등도 제작했다. 기념품들은 한남대 서점 내 기념품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남대 관계자는 “기념 굿즈들은 개교 70주년을 동문, 구성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의미있게 되새기고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남대, 268억 규모 ‘국방AX거점’ 구축 사업 주관기관 선정

한남대학교는 국방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주관하는 ‘2026년 국방 AI인재양성사업(군·산·학 협력센터 인프라구축 및 운영)’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한남대학교는 국방 AX 거점 구축 사업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됐다. 향후 한남대는 국방 AI 연구와 실증, 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대전을 대한민국 국방 AI 혁신의 핵심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업 선정에 따라 한남대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268억 원의 정부지원 사업비를 받을 예정이며, 전국 5개 국방 AI전환(AX) 거점 내 군·산·학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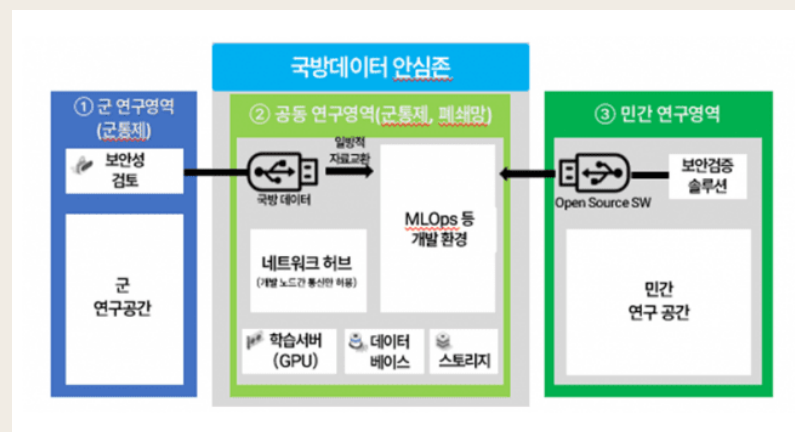
이번 사업은 한남대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전문기관과 (주)KT, (주)엠아르오디펜스(MROD) 등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전국 5대 군·산·학 협력센터(국방 AX거점)는 ▲서울(용산·합참)=합동지휘통제체계 중심의 지휘부 거점 ▲경기(판교·육군)=AI, 소프트웨어 기술 실증의 첨단 산업 연계 거점 ▲충청(대전·육군)=AI기반 군수·정비를 책임지는 정비 거점 ▲경상(부산·해군·해병대)=스마트 함정 및 해양 안보 거점 ▲서울(양재·공군)=유·무인 복합전력, 미래항공 거점 등이다.

각 센터는 국방망·폐쇄망·인터넷망으로 구분된 3개 ‘데이터 안심존’을 구축한다. 핵심 인프라

로 엔비디아 HGX B300급 학습 서버와 함께 AI모델의 개발부터 배포, 운영, 학습까지 전 주기를 최적화하는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남대는 AX거점센터 시설 및 시스템 구축·운영은 물론 군·산·학 협업체 운영, 국방 AI 프로젝트 기술 컨설팅, 데이터 전처리까지 총괄하게 된다. 이밖에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지적재산권 관리, 인프라 활용 만족도 80% 이상 확보를 위한 성과지표 관리도 진행한다.



“
한남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방산업의 한 획을 긋는
것은 물론, 군과 산업,
대학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국방 혁신의
패러다임을
전환 시켜 나가겠다
”

군·산·학 협력센터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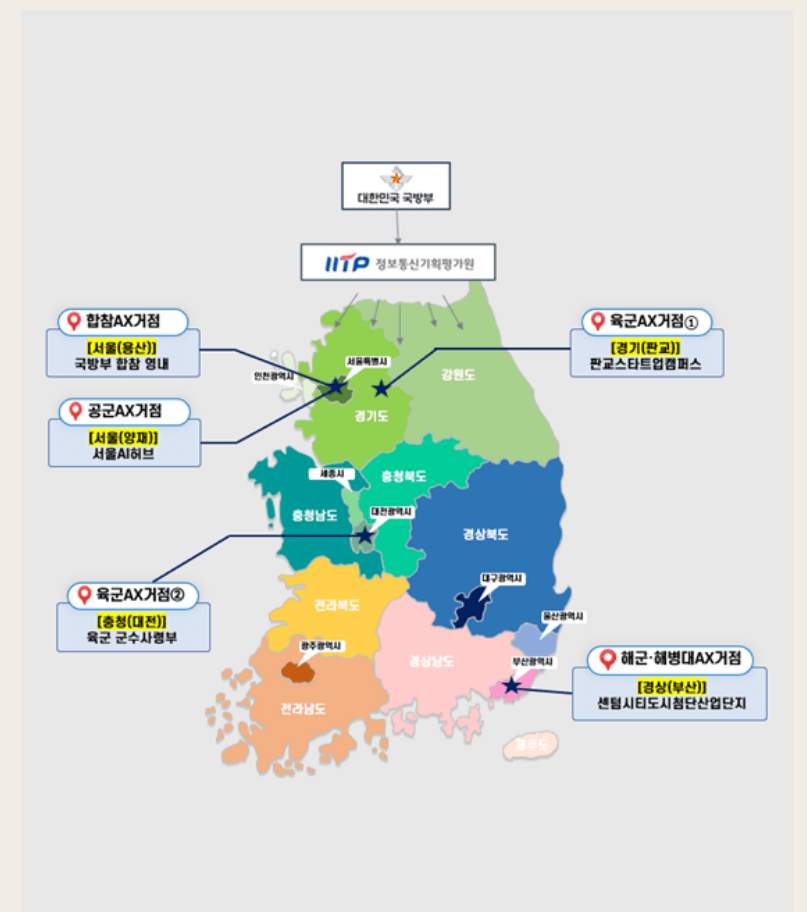
AI활용 이미지.

이번 사업은 AI/AX기반의 군 무기체계 발전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대학과 기업 등 민간의 우수 기술과 협력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갖춘 국방 AI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사업 책임자인 이준원 교수는 “군(軍)의 전문성과 산·학의 기술력을 결합한 고도화된 국방 AI 연구·개발·실증 환경을 조성시켜 미래 인재 육성에 나서겠다”며 “엔비디아(NVIDIA) B300 기반의 초고속 GPU 서버와 완벽한 망분리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방 AX를 주도할 최고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철 총장은 “대한민국 국방력의 미래는 AI 인재와 데이터, 그리고 이를 실증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에 달려 있다”며, “한남대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방산업의 한 획을 긋는 것은 물론, 군과 산업, 대학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국방 혁신의 패러다임을 전환 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산학 협력센터(국방 AX거점) 구축(안)
(사진=IITP)



한남대학교 국방AX융합연구소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발주한 ‘함정 무인기 효과도 분석 환경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이번 용역사업은 오는 2027년 10월까지 한남대학교를 주관으로 엠아르오디펜스, KECI, 해군사관학교 전문 연구진이 참여한다. 한남대학교 국방AX융합연구소는 이번 사업에서 실전성과 가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기술 모델을 적용한다. 합성 전장 환경 기반의 함정 무인기 효과분석 모델과 센싱 기반의 AI 디지털 트윈을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모델이 그 핵심이다. 이를 통해 가상 세계에서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보다 정밀하고 실무적인 분석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한남대학교 국방AX융합연구소, ADD 함정 무인기 효과도 분석 사업 수주

함정 무인기 이미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연구 개발을 넘어 차세대 함정 무인체계의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실무적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남대는 국내 최초로 국방분야 ‘인공지능 전환 융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인공지능 혁신대학원의 국방AX융합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을 개설했으며, 전문 인력들이 수주한 함정 무인기 효과도 분석과 같은 AX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남대 국방AX융합연구소는 대학이 축적한 첨단 지식을 실무 국방 기술에 접목시켜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국가 기관의 요구사항을 정밀하게 충족시키는 기술적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준원 국방AX융합연구소장은 “국방 AX 기술이 적용된 무인기가 전장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의 성공은 엠아르오디펜스의 AI 디지털 트윈 기술, KECI의 M&S 역량, 그리고 해군사관학교의 실전적 운용 개념이 국방 AX융합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방 AX 생태계로의 융합에 달려있다”며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산업계가 하나로 뭉쳐 만들어내는 이러한 시너지는 향후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대전지역 대학 유일 ‘S등급’



한남대학교는 계열별 다양한 학과에서 참여해 지역 고교생의 전공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남대학교가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 대전지역에서 유일하게 ‘S등급’을 획득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5월 21일 발표한 연차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남대를 비롯한 전국 18개 대학들이 S등급을 받았으며, 인센티브로 사업비의 10%를 추가로 받게 된다. 충청권에서는 한남대와 충북대, 호서대 등이 S등급을 받았으며, 대전에서는 한남대가 유일하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입학 전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4주기 사업(2025~2026) 선정대학 9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2025년 사업 운영 실적과 2027~202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대입 평가역량 ▲고교교육 연계성 ▲사회적 책무성 ▲예산운영 등 4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한남대는 그동안 고교생의 고교 교육과정 직접 지원을 위한 선택과목 개설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해왔다.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개설을 위해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협력해 ‘교육청연계 HNU 학교 밖 교육-원클래스(교과형)’를 운영했으며 ‘HNU 고교학점제 교과 지원 프로그램’을 지역의 고등학교들과 운영하고 있다. 또 고교 교사의 진로·진학 역량 강화를 위해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 ‘HNU 대입전형 이해를 위한 교사연수’를 시행하는 한편 학부모의 대입전형 이해도 제고 및 사교육 부담완화를 위해 ‘HNU 학부모 대입정보 레시피’도 지역 고교와 협력해 운영해왔다.

이외에도 계열별 다양한 학과에서 참여해 지역 고교생의 전공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교를 직접 방문해 모의면접, 설명회, 박람회 등을 운영해 대학입학 전형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수험생에게 진학 정보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우리 대학은 사교육을 줄이고 고교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의 전문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오랜시간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공교육의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고교-대학연계를 통해 고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전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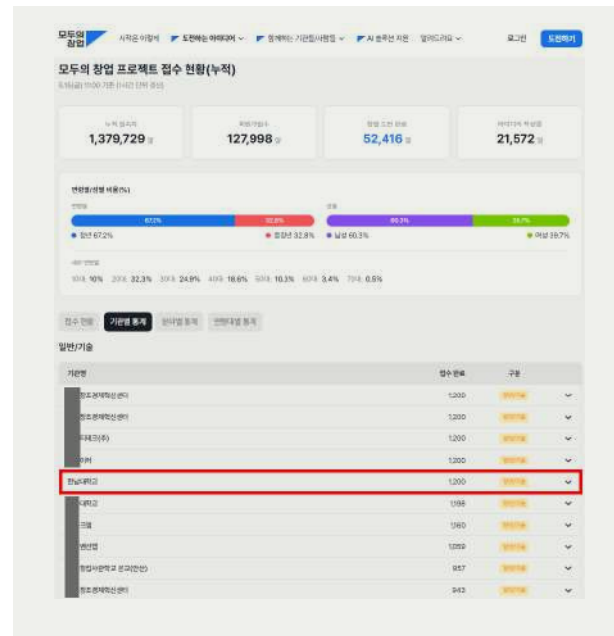


한남대학교는 고교 교사의 진로·진학 역량 강화를 위해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 ‘HNU 대입전형 이해를 위한 교사연수’를 시행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전국대학 지원률 1위

한남대학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추진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에서
전국대학 운영기관 최초로 지원접수 1위를 기록하며
창업지원 역량을 입증했다.

지난 5월 15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을 마감한 결과 한남대는 전국 대학 운영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아이디어(1200건)가 접수됐다. 또 멘토기관 팔로우 수 1,682명을 기록하며 전국 운영기관 중 가장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한남대의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기반으로 구축해 온 창업 확산 체계와 지역 연계 활동이 높은 참여율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한남대는 이번 사업 운영 과정에서 단순 모집 중심이 아닌 '창업 저변 확대'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현장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특히 대전·세종 비즈쿨 교사협의회와 연계한 고등학교 순회 설명회를 통해 청소년 창업 인식 확산에 나섰으며, 창업을 대학 이후가 아닌 고등학생 단계부터 경험할 수 있는 진로로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또 창업 인재전형과 연계한 설명회를 통해 창업 경험이 대학 진학과 이후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안내하고, 교내 창업강좌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학생 참여 기반도 함께 확대해왔다.

지역 청년과의 접점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남대는 최근 대전 지역 청년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들이 생활권 안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 청년센터 공간과 커뮤니티를 활용해 창업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남대는 참여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심사 체계를 운영하며 우수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굴하는 데도 힘써왔다.

앞서 진행된 전국 운영기관 참여 현황에서도 한남대는 전국 운영기관 2위, 비수도권 1위를 기록하며 높은 참여율을 나타낸 바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무엇?

'모두의 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민 프로젝트다. 복잡한 사업계획서 없이 간단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창업 경험이 없는 예비 창업자도 참여할 수 있어 창업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이번 사업은 단계별 지원 구조로 운영된다. 아이디어 심사 진출자에게는 창업활동자금 200만원과 AI 솔루션 활용 지원 최대 200만원(총 2개월) 제공되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다.

1라운드 진출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시제품 제작(MVP) 지원과 함께 기술 및 책임 멘토링이 제공되며, 2라운드에서는 최대 1,000만원의 시제품 제작(MVP)과 선배 창업가 및 전문가 멘토링이 추가로 지원된다. 2라운드 진출자에게는 평균 600만원 규모의 시제품 제작(MVP)

지원과 함께 기술 멘토링 및 사업화 컨설팅이 제공되며, 3라운드에서는 최대 1,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선배 창업가 및 전문가 멘토링이 추가로 지원된다. 최종 선발된 창업자에 대한 후속 지원도 확대된다.

Final 진출자 100명에게는 차년도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이 연계 지원되며,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5억원과 투자 5억원 등 총 10억원 규모의 지원과 함께 글로벌 전시회 CES 참가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남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디어 단계에서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창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제품 제작, 사업모델 검증, 창업 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등을 연계 지원한다. 또 지역 창업기관 및 민간 협력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시장 검증과 후속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단계별 평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창업자를 선별하여 상위 라운드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훈 한남대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전국 대학 최초 지원접수 1위 성과는 단순 수치를 넘어, 창업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청소년과 대학생, 지역 청년까지 창업 참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온 노력이 실제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代를 이은 ‘한국 사랑’

한남대 설립 초기 선교사 자녀 릴리안 프린스



1957년 설립 초기 한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프린스 선교사(한국명 박인성)의 자녀
릴리안 프린스 (Mrs. Lillian C. Prince·66세) 여사가
한남대에 특별한 선물을 보내왔다.

5월 말 한남대에 특별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릴리안 프린스 여사가 보낸 편지는 지난해 10월
어머니 모네타 프린스(한국명 서명숙) 선교사께서 별세하셨고,
어머니를 기리는 의미를 담아 장학금 3750만원을 기탁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릴리안 프린스는 지난 2024년에도 한남대에 장학금 3000만원을 기탁 한 바 있다.

프린스 가족과 한남대의 인연은 오랜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01. 한남대학교 개교당시 프린스 선교사 부부
- 02. 프린스 부부와 릴리안프린스 한남대학교 방문 사진
- 03. 릴리안프린스 아기때 모습
- 04. 릴리안프린스 어린시절 모습
- 05. 릴리안프린스 발전기금 전달(사진 오른쪽 이승철 총장)

텍사스대 공학박사였던 프린스(박인성) 선교사는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 등 주요 전투에 참전했었으며, 이후 1957년부터 한남대 수물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 선교를 해왔다. 이후 1977년 한남대가 서울 숭실대와 통합 당시 숭전대학교 협동 총장을 역임하며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한남대는 그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공과대학 1층 세미나실을 ‘프린스 홀’로 명명하고 사용하고 있다.

부인인 모네타 프린스(서명숙)선교사는 한남대 설립 초기 영어영문학과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교육 선교와 인재 양성에 동참해왔다. 프린스 부부는 한국에서 릴리안 프린스를 출산했으며, 한국전쟁 직후 한남대 선교사촌(대전시 문화재자료 제44호)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했다.

프린스 선교사 부부의 자녀인 릴리안 프린스 여사는 어린 시절 한남대 선교사촌에서 자라며 부모님과 함께 한국 생활을 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1984년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어린 시절을 보낸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



릴리안 프린스 여사는 “지난번 장학금을 받은 10명의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왔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번 장학금도 한남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모님이 한국과 한남대에 남긴 사랑과 헌신이 다음 세대 학생들을 통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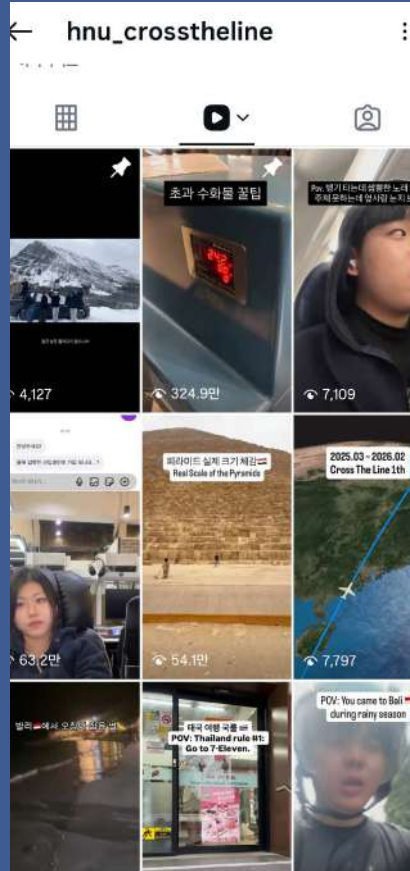
한남대 이승철 총장은 “프린스 가문의 지속적인 장학금 기탁은 한남대 설립 초기 선교사들의 교육 정신과 사랑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사례”라며 “기탁자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대 호텔항공경영학과 학생들, SNS 글로벌 여행 공유 누적 조회수 500만회 달성

“ 앞으로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경험을 콘텐츠로 기록해
공유하며, 여행을 꿈꾸는
많은 동료 후배 대학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과 없이 담아내면서 가성비 여행을 계획
하는 청년들에게 높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현재까지 ‘크로스 더 라인’은 약 40여개의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누적 조회수는 500
만회, 단일 콘텐츠 최대 325만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황은우 회장과 친구와 단둘이 시작했던 동
아리는 현재 20여명의 학과내 회원들이 모
여 활동하는 어엿한 학과 동아리로 자리를
잡았다. 학생들은 베트남 다낭을 비롯해 태
국 방콕, 캐나다, 미국, 세부, 중국, 스페인,
터키, 이집트 등 해외 곳곳을 자유 여행하
며 벌어지는 에피소드와 문화를 대학생 시
각으로 진솔하게 담아냈다.

크로스 더 라인 동아리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계를 넘어 경험과 추억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한남대학교 호텔항공경영학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여행동아리 ‘Cross the Line
(인스타그램 주소hnu_crosstheline)’이
SNS 콘텐츠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여행 경험을 공유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동아리를 설립한 황은우 회장
(호텔항공경영21)은 해외여행을 다니며
촬영한 영상을 SNS에 공유했고,
자유여행을 떠난 대학생들의 모습을

인스타그램 주소 **hnu_crosstheline**



비전문가들이 제작한 영상이지만 콘텐츠의
영향력을 인정받아 국내 대표 여행사인
하나투어로부터 인스타그램 공동작업자
(콜라보레이션) 게시 제안을 받는 등,
개인 콘텐츠가 실제 산업 협업으로
확장되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행 과정에서 얻은 실용적인 정보와
생생한 문화 경험을 결합한 콘텐츠는
이용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단순 기록을 넘어
정보성과 공감성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여행 콘텐츠 모델로 평가된다.**

황은우 회장은 “여행을 통해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경험을 콘텐츠로 기록해 공유하겠다.”며
“대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동료 후배들이
함께 추억을 만드는 게 목표이며 여행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호텔항공경영학과 김동한 학과장은
“전공과 연계된 글로벌 경험을 디지털
콘텐츠로 확장한 우수 사례”라며
“학생 주도의 콘텐츠 활동이 대학 이미지
제고와 도전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어영문학과, 동문 선배들의 특별한 강의

특강 01 정일웅 동문

한남대 영어영문학과가 최근 동문 선배들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하면서 재학생들의 호응이 높다. 성공한 삶을 살아온 선배들을 통해 취업 정보를 취득하는 한편 인생 경험을 들으며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 12일에는 에미레이트항공 정일웅 기장(영어영문학과 89학번)을 초청해 특강을 가졌다. 정 기장은 1993년 한남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군사관후보 조종장교로 임관해 10년간 공군 수송기 조종사로 복무했다. 군 생활 동안 대장 표창 2회와 미 공군대학교 초급 지휘관 참모과정에 비사관학교 출신으로 최초 선발돼 한국 군 최초 우수졸업생으로 선발됐다. 정 기장은 전역 후 대한항공에 입사해 민항기를 조종했으며, 이후 세계적인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항공으로 이직해 총 33년간 약 2만 시간 이상 비행기록을 유지하며 근무 중이다.

책 <어쩌다 파일럿>과 <언제나 파일럿>을 쓴 작가이기도 하다. 한남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영어영문학과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특강은 ‘한남에서 배운 영어로, 세상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의 주제로 진행됐다. 정 기장은 공군 조종사 시절의 경험과 글로벌 항공 현장에서의 도전 과정, 그리고 영어 학습과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특히, 세계 각국 출신의 조종사들과 협업하며 체득한 글로벌 역량과 끊임없는 자기 계발의 중요성을 후배들에게 전했다.

정 기장은 “과정보다 중요한 결과는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실패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과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01. 정일웅 기장 특강 02. 정일웅 기장 03. 모교 후배들과 정일웅 기장



특강 02 이택순 동문



21일에는 이택순 동문(영어영문학과 98학번)을 초청해 후배들에게 슬기로운 사회 생활 노하우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택순 동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유도를 시작해 세계 청소년 유도대회 우승과 고등학교 44연승 무패 행진을 거듭하며 1992년 유도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된 이색 경력을 갖고 있다. 이후 용인대학교를 자퇴하고 재수를 거쳐 1998년 한남대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했다. 4년간의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낸 이후 2002년 1월 (주)대우건설에 입사했다. 이 동문은 모로코와 알제리, 나이지리아 LNG 사업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특별한 삶'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 동문은 후배들에게 대우건설 합격자들의 평균 스펙 정보를 비롯해 입사를 위한 실질적인 팁을 제공하는 한편, 성공적 사회생활을 위한 인생 선배로서 다양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날 특강 행사 이후 후배들과의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으며, 이택순 동문은 후배들을 위해 학과 장학금 120만원을 쾌척했다.

영어영문학과 김유진 학과장은 “한남대를 졸업한 동문 선배님들의 생생한 사회생활 경험과 인생 노하우를 들려주는 선배 특강들이 재학생들에게 큰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양질의 특강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01. 이택순 동문과 학생들 02. 이택순 동문 장학금 전달 03. 이택순 동문 특강



실험실 창업의 모범, 메타뱅크 소요환 교수 (미디어영상학과)

“중국 시장 진출과, 패션을 비롯한 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안경,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분야 진출을 모색과 AI 소프트웨어에서 로봇까지 개발해내는 로봇틱스 분야까지 연구를 확장해 나갈 포부를 밝힌 메타뱅크 소요환 교수.

”

상황 ①

A 백화점 매장을 찾은 아영씨는 키오스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다. 사진을 촬영한 키오스크는 아영씨의 신장과 가슴둘레, 어깨너비, 허리둘레 등 신체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분석한다. 아영씨가 키오스크에서 입어볼 아이템을 선택하고 가방과 벨트, 액세서리까지 패션 아이템을 동시에 선택하자 15초만에 가상으로 키오스크로 옷을 갈아입은 후의 아영씨의 모습이 올라왔다. 앞모습 뿐 아니라 입체적인 뒷모습도 확인이 가능하다.

상황 ②

정희씨가 소유한 스타일리의 앞면 유리에는 ‘스마트 드레싱 미러’가 설치돼있다. 스마트 드레싱 미러는 내 옷장 속의 옷을 기본으로 시를 활용해 날씨와 상황, 유행에 맞춘 스타일을 제안한다. 정희씨는 스마트 드레싱 미러가 제안한 따뜻한 봄날 나들이 옷을 추천받아 옷을 입고 외출한다. 산뜻한 원피스와 찰떡 공합의 가방, 액세서리까지 추천하는 옷장이 개인비서 뉘을 톡톡히 해낸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남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소요환 교수가 21년간 연구실에서 연구해왔던 실험실 아이디어가 실제 상용화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메타뱅크 제품이야기다. 인공지능을 전공한 소요환 교수는 지난 2021년 한남대 실험실창업 1차년도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메타뱅크 법인을 설립했다. 당시에는 3D 기반의 가상 피팅이 전무였고, 모델의 실제 체형 등을 반영할 수 없었다. 실제 착용 해 볼 수



중국 시장 진출, 다양한 분야 진출 모색, AI 소프트웨어에서 로봇까지 개발해내는 로봇틱스 분야까지 연구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는 메타뱅크 소요환 교수

없는 온라인 쇼핑몰이 성행하고, 실제 매장에서 피팅룸 앞에 긴 줄을 서고 기다렸던 상황이 일반화된 시절이다.

소요환 대표는 시가 일반화 되면서 가상피팅의 정확성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현실한 모델이 아닌 실제 나의 모습을 촬영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옷을 실제 입어본 것과 같은 최상의 리얼리티를 구현해 냈다. 시를 활용한 가상 피팅은 반품률 감소와 구매전환률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로 이어졌고, 기업도 소비자도 만족하는 경제적 효과를 제공했다.

메타뱅크가 개발한 가상피팅 솔루션은 ‘보고핏(BOGOFIT)’으로 어플리케이션과 의류 매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키오스크, 통합 플랫폼 시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13개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TIPS 프로그램, 실험실특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등 6개 정부 과제도 선정됐다.

국내의 타 업체나 중국, 미국의 경쟁업체와 비교했을 때 ㈜메타뱅크의 기술은 이미지 합성 기

반의 가상 착장 정밀도와, 현실감 자연도, 의류 실루엣 비율보정 정확도, 체형분석 알고리즘 정확도 등에서도 90% 이상 정확도를 보이며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경쟁력은 초창기 3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메타뱅크를 현재 14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어엿한 중소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지난해 ‘보고핏’은 CAFE24 앱 서비스를 등록하고 출시했으며, 동대문 패션몰에 보고핏 어플리케이션 공급과 쇼핑몰 공동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에는 롯데백화점 모바일 앱 ‘SELF FIT(셀핏)’에 가상 피팅 어플을 공급하는 한편 롯데백화점 본사와 유니클로 세계 일부 매장에서 가상피팅 키오스크를 테스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계 시장 진출도 기대하고 있다.

㈜메타뱅크는 지난 2024년 대한민국 산업대상 ‘대상’수상 이후 중국 산둥자상공교육문화유통사와 보고핏 어플리케이션 공급계약 체결, 중국 웨이하이 법인설립, 인도네시아 등 해외 진출도 활발하다. 무엇보다 단순 연구 결과물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매출 11억원을 달성한 이후 올해는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성장과 해외 시장 진출이 완료되면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소요환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상 피팅을 모토로 대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시장을 보유한 중국 시장 진출과, 패션을 비롯한 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안경,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분야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며 “AI 소프트웨어에서 로봇까지 개발해내는 로봇틱스 분야까지 연구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메타뱅크가 개발한 가상피팅 솔루션은 ‘보고핏(BOGOFIT)’으로 어플리케이션과 의류 매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키오스크, 통합 플랫폼 시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한남대 디자인팩토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FC’ 글로벌 챌린지 ‘우승’



한남대학교 디자인팩토리 학생팀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첼시FC’와 함께 한 글로벌 산학협력 프로젝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한남디자인팩토리는 첼시FC, LG전자 라트비아 등의 세계적인 대기업들과 2026년 상반기 정규 교과목인 ‘GDTP(Global Design Thinking Project)’를 진행했으며, 영국 브루넬대학 런던디자인팩토리(Brunel University of London), 콜롬비아 하베리아나 대학교(Pontificia Universidad Javeriana)의 칼리 디자인팩토리, 태국 명문 출랄롱크른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 등 10개 이상의 글로벌 학생팀과 경쟁 끝에 한남대 ‘블루밍’팀이 첼시FC 프로젝트 최종 우승팀에 선정됐다.

첼시FC 프로젝트는 영국 첼시FC가 주관기업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첼시 팬들이 지리적 한계를 넘어 구단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팬경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을 의뢰했다. 여기에 글로벌 기업인 IBM, Meta, Rezil이 기술 자문기업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한남디자인팩토리에서는 2개팀이 참가했으며 이 중 ‘블루밍(강재연, 김민정, 배서준, 양서영, 신동건, 심명보, 전소민)’팀은 영국의 펍(Pub)문화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가상현실(AX·VR) 몰입형 축구 관람 서비스를 제안했다. 이들은 영국의 펍이 단순 음주 공간이 아닌 축구팬들이 함께 경기를 보고 응원하며 소속감을 공유하는 문화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첼시 경기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팬들도 펍에서 VR 기기를 활용해 경기장에 있는 듯한 몰입형 관람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했다.

한남대 블루밍팀은 한국의 PC방이 공간 인프라를 통해 많은 이용자가 저렴하게 고성능 장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영국의 펍에서도 개별 소비자 구매가 아닌 공간 기반 서비스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팬과 지역 상업공간, 구단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은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교육과정을 위해 한남디자인팩토리는 지난해부터 영국 브루넬대학교 런던디자인팩토리와 수업설계와 기업섭외를 공동으로 준비해왔으며 올해 2월 학생들을 런던디자인팩토리로 파견했다. 학생들은 첼시 구단을 직접 방문해 프로젝트 설명을 듣고 기술 자문기업의 특강과 멘토링 세션을 통해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을 검토했다. 현지에서 축구 관람 문화와 펍 문화를 조사하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진행해 솔루션의 현실성을 높였다.

프로젝트 교과목을 담당한 한남디자인팩토리 필립로스 교수는 “경영, 공학, 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다학제간 융합팀을 구성하고, 디자인 싱킹 방법론에 기반해 창의적인 솔루션을 도출한 도전 과정이 우승의 비결”이라며 “이번 우승을 통해 스포츠, 기술, 디자인, 비즈니스가 결합된 문제해결형 교육 모델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김상식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

한남대 베트남 유학생들과 특별한 만남

‘베트남 국민 영웅’으로 불리는 김상식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한남대를 방문해 베트남 유학생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한남대는 지난 5월 29일 ‘베트남 유학생과 함께하는 김상식 감독 초청 행사’를 개최했으며, 200여명의 베트남 유학생이 참석했다.

김상식 감독은 이날 이승철 한남대 총장을 예방한데 이어 베트남 유학생들과 만나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유학생회는 김상식 감독을 위해 축가를 준비했으며 사인볼 추첨과 사인회도 진행됐다.

김 감독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이자 K리그를 대표하는 미드필더로 활약했으며, 지도자로서는 전북 현대를 이끌어 K리그와 FA컵 우승을 달성한바 있다.



한남대는 베트남 유학생과 함께 김상식 감독 초청 행사를 개최해 200여명의 베트남 유학생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부임 후 단 8개월 만에 AFF 컵 우승을 이끌며 베트남 축구 발전에 크게 기여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뛰어난 전술과 리더십으로 베트남의 6년 만의 정상 탈환을 이끌어 ‘제2의 박항서’,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양국 간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김 감독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먼 나라인
한국의 한남대학교로 유학을 온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노력하고 많은 경험을 얻어가길 바란다”라며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처럼 유학생생활을 해보고 싶다.
이미 부러운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추후 베트남을 이끌어가는 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지난해에는 박항서 前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한남대를 방문해 베트남 학생들을 위한 특강을 진행했으며, 유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개교 70주년을 맞는
한남대학교를 위해 특별한 인연을 가진
고액 기부자들의 발전기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DONATION FOR
THE 70TH ANNIVERSARY

01

개교 70주년 ‘축하’ 고액 기부, 서초순 명예교수



효시인 서 교수는 한남대에 대한 그리움을 늘 마음 한켠에 갖고 지내며 대학의 발전을 위해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지난 2023년 서초순 명예교수가 발전기금 2억원을 쾌척한 이후 한남대는 서 교수에게 ‘대학장’을 수여하고, 서교수가 근무하던 사범대학의 심포지엄 홀을 ‘서초순홀’로 명명했다. 대학장은 창학이념에 입각해 대학 발전에 뚜렷한 공을 세운 인사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포상이다.

지난 5월 16일 오전9시 본관 2층 총장접견실에서는 개교7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서초순 명예교수(영어교육과)의 고액 발전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서초순 명예교수는 1억원(누적기금 3억원)을 전달했다.

서초순 명예교수와 한남대와의 인연은 4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 한남대 교수로 임용돼 영문학과와 영어교육학과에서 3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2000년 퇴직했다. 그 후로 2010년까지 10년간 명예교수 생활을하며 교단에서 제자들을 길러냈으며 지난 2017년 종신명예교수로 임용됐다.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의



DONATION FOR
THE 70TH ANNIVERSARY

02

개교 70주년 ‘축하’ 고액 기부, 김병순 (주)나노하이테크 대표

지난 5월 16일 오전9시 본관 2층 총장접견실에서는 개교7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김병순 (주)나노하이테크 대표이사의 고액 발전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김병순 대표는 2300만원(누적 기금 1억6500만원)을 전달했다.

김병순 (주)나노하이테크 대표이사와 한남대는 마음 한켠이 아려오는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2005년 당시 일문과 4학년에 재학중이던 딸 김희진 씨가 ‘루푸스’라는 희귀병으로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다. 이후 김 대표는 ‘김희진 장학금’을 만들어 딸의 후배들을 위해 매년 기부를 실천해왔다. 딸과의 신의를 지키는 마음으로 매년 장학금을 기탁해 어느덧 21년의 시간이 흘렀다.

딸아이의 모교라는 인연을 넘어,
한남대와의 깊은 관계를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어가고 있는 김병순 대표



70주년 생일을 맞은 한남대에 발전기금을 쾌척한
정명순 대표

김 대표는 딸아이의 모교라는 인연을 넘어 한남대 총장자문위원, 한남대 가족회사 참여, 김희진 장학회 운영 등 한남대와의 깊은 관계를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어가고 있다.

한남대 이승철 총장은 “한남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발전과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두 분의 소중한 뜻을 기리고 대학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ATION FOR
THE 70TH ANNIVERSARY

03

교수님들의 ‘훈훈한’ 제자사랑
한남대여교수회,
은퇴교수회 발전기금 기탁

한남대학교 교수들의 제자 사랑이 개교 70주년을 맞아 훈훈하게 이어지고 있다.

한남대 여교수회 회원 70여명이 십시일반 모아온 회비를 쪼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하는가 하면, 은퇴교수회(성지회) 회원들은 후학양성과 대학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한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지난 4월 9일 오전 11시 본관1층 한남기독교전시관에서는 성지회 발전기금 전달식이 열렸으며,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현영석 성지회 회장은 한남대 이승철 총장에게 발전기금 1004만원을 전달했다.

성지회는 지난 2024년 1000만원, 2025년 562만원에 이어 올해도 발전기금을 기탁했으며, 오랜시간 한남대와 함께해온 구 성원으로 깊은 애정과 관심을 전달했다.

200여명의 은퇴교수들로 구성된 성지회는 한남대생들의 아침식사 제공을 위한 장학금 기부 캠페인을 비롯해 학교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70여명의 여성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남대여교수회도 개교 70주년을 맞아 학생들의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여교수회 회장인 박미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한남대에 장학금을 기탁하며 “여교수회는 친

목을 도모하는 모임이지만,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랜시간 이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교수님들이 뜻을 모으게됐다”고 말했다.

한남대 이승철 총장은 “기부해주신 교수님들의 소중한 뜻을 깊이 새겨 앞으로 학생교육과 연구환경개선, 대학의 미래 경쟁력강화를 위해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 여교수회(회장 박미은 교수) 발전기금 기탁
2. 은퇴교수회 장학금 전달
3. 은퇴교수회(성지회)

DONATION FOR
THE 70TH ANNIVERSARY

04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70주년 생일 맞은 한남대에
발전기금 쾌척

70주년 생일을 맞은 한남대에 발전기금을 쾌척한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대전·충청권 대표 사립대인 한남대의 70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학교가 미래 100년 동안 더욱 발전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새로남 교회는 2008년부터 오랜 시간 한남대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기금을 꾸준히 기탁해오고 있으며, 기독교 인재 배출을 위한 큰 기부와 격려가 학교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기부해 주신 뜻을 받들어 대학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담임목사가 한남대학교 70주년을 기념해 한남대 학생들을 위한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지난 4월 16일 발전기금 기탁식이 열렸으며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한남대 이승철 총장에게 발전기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새로남 교회는 그동안 한남대에 학생 장학금, 선교장학금, 천 원의 아침밥 기금 등 다양한 종류의 기부를 실천해 왔으며, 누적 금액이 2억 3,200만 원에 이른다.

오정호 목사는 한남대 총장자문위원으로 한남대의 운영과 대외홍보에 대한 자문을 아끼지 않았으며, 한남대 ‘아너스클럽’ 회원으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2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를 통해 장학 정신에 걸맞은 기독교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한남대는 지난해 오정호 목사에게 대학이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 ‘대학장’을 수여한 바 있다.

오정호 목사는 “미국 선교사들의 헌신과 기

지난해 한남대에게 대학이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 ‘대학장’을 수여받은 오정호 목사



DONATION FOR
THE 70TH ANNIVERSARY

05

식품영양학과 교수님들의
‘학과 사랑’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미래 발전을 응원합니다.” 한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들이
개교 70주년을 맞아 식품영양학과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지난 5월 21일 식품영양학과 발전기금 전달식이 열렸으며, 권창우 학과장이 이승철 총장에게 학과 교수님들이 모은 발전기금 2004만원을 전달했다.

식품영양학과 권창우 학과장을 비롯한 권영인, 김민주, 박은미, 송수진, 조가람 교수 등이 발전기금 모금에 동참했으며, 정성껏

모은 기금을 학과의 미래 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지정 기탁했다.

권창우 학과장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처럼 지원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학과 발전을 위해 사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남대 식품영양학과는 학과내부 교육성과, 대외활동 성과, 산학연관 교류 실적 및 교원개인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자체평가 2년연속 최우수학과에 선정된바 있다. 식품영양산업을 선도할 인재 육성 및 공동연구협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한울 F&S, 동원홈푸드 등과의 업무협약을 맺는 등 활발한 학과활동을 하고 있다.

한남대 이승철 총장은 “학과 교수님들이 제자들을 위해 귀한 마음을 모아주셔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라며 “기부해주신 발전기금은 귀한 마음을 받들어 학과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뜻깊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창우 학과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과 발전을 위해 사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DONATION FOR
THE 70TH ANNIVERSARY

06

한남대 재경동문회
모교70주년 기념
발전기금 기탁

“모교의 개교 70주년을 맞아 재경동문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진행했어요. 동문들이 흔쾌히 응해주셔서 장학금을 기탁할 수 있었습니다.”

한남대를 졸업하고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경동문회가 개교70년을 맞은 모교를 위해 모금운동을 통해 모은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지난 5월 29일 발전기금 전달식이 열렸으며, 한남대 재경동문회 김경훈 회장과 오용승 사무총장은 한남대 이승철 총장에게 장학금 2745만원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누적 기탁금액은 8165만원에 이른다. 재경동문회는 650여 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한남비즈니스포럼, 한남산악회, 한남이글스, 한남유니온(동문참여기업)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재경동문회는 학교 사랑과 후배 사랑을 실천하며 매년 꾸준히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있다. 김경훈 회장은 “이번 모금은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모교 개교 70주년을 함께 기념하고 후배들의 더 나은 미래를 응원하는 선배들의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승철 총장은 “한남대를 졸업하고 수도권에서 탄탄한 기반을 잡으시고 대학의 이름을 빛내주고 계신 동문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을 받들어 학교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의미있게 사용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이승철 총장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주총동문회 정기총회에 참석했으며, 북미주총동문회 장학위원회는 개교70주년을 맞은 모교를 위해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북미주총동문회는 미국사회에 정착한 한남대 동문들이 중심이 돼 모교와 해외 동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동문간 유대강화와 모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